

투게더아트, 제5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 ▶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우환(Lee Ufan)'의 'With Winds(바람과 함께)'
- ▶ 2024년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다섯 번째 상품 출시 앞뒤

<2024-10-07> 투게더아트가 다섯 번째 미술품 조각투자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미술품 경매회사 (주)케이옥션의 자회사인 (주)투게더아트(대표 도현순)는 제5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7일 공식 밝혔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 제5회차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앞서 청약과 모집 절차를 모두 끝낸 제4회차까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해, 2024년 내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공개하는 것" 이라고 전했다.

금번 투게더아트에서 제출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는 세계적인 경매 회사 필립스(Phillips Hong Kong)에서 선매입하여 취득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이우환(Lee Ufan)'의 대형 작품인 1990년작 'With Winds(바람과 함께)[캔버스에 오일, 캔버스 150호 크기, 227.3cm(세로) x 181.8cm(가로)]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미술품의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는 2015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거래 사례 532점을 분석하여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했고,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객관적 검증을 거쳤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재와 비슷한 주기로 정례화해 좋은 미술품들을 투자자들과 미술애호가 대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개된 후, 10월 초까지 벌써 5회차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기까지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할 수 방안을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 수익모델 다변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금번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NH투자증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모집총액은 1,178,000,000원이며, 1주당 금액은 1만원, 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다.

5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요약

구분	상세 내용
증권의 종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AT-UFAN-005)
모집 총액	1,178,000,000원
작가	이우환(Lee Ufan, 한국, 1936~)
작품	With Winds(바람과 함께)[1990년 작, Oil on Canvas, 227.3 x 181.8cm(150호)]
작품 취득 방법	필립스(Phillips Hong Kong)사로부터 선매입(2024년 9월)
작품 특징	<With Winds(바람과 함께)>는 이우환이 회화를 통한 관계적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시기의 작품으로, 80년대에 시작하여 90년대 초까지 이어진 바람 연작의 전형성을 광활하게 펼쳐진 화폭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은 채 여백 공간을 부유하는 바람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개개인의 존재를 상징하며, 그것이 때때로 중첩되고 분산되는 움직임은 외부 세계와 조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할 때 개인의 내면에 펼쳐질 수 있는 변화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작품은 보이지 않는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시적 매체로서 회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이우환의 예술적 성취, 그리고 그 점진적 과정의 일면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모집 방식	당사 선배정 10%, 일반청약자 90%(균등 10%, 비례 80%)
청약 기간(예정)	2024년 10월 28일(월) 10:00 ~ 2024년 11월 4일(월) 16:00
청약 단위 및 수량	1주 1만원, 최대 3,000주(3,000만원)
청약 방법	투게더아트 홈페이지(www.weshareart.com)를 통해서 NH투자증권 실명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하여 청약
기초자산 전시	1차: 10월 9일 ~ 10월 16일(청약 전 사전 공개) 2차: 10월 28일 ~ 11월 4일(청약 중 일반 공개) 장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2길23, (주)케이옥션 전시장

[별지]

1. 기초자산의 요약



이우환(Lee Ufan), With Winds(바람과 함께, oil on canvas, 227.3 x 181.8 cm, 1990

2.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 작가(생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19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우환은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학부를 중퇴한 뒤, 니혼 대학(Nihon University) 철학과에서 수학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과 철학적 글쓰기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도쿄 사토화랑(Sato Gallery)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그는 전시가 열린 이듬해인 1968년, 일본인 동료 예술가와 함께 모노하(物派, 물파) 그룹을 형성하며 물체 자체에 집중하는 초기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관람자와 작품,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둘러싼 공간을 탐구하는 그의 초기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의 예술적 관심사, 즉 '시간, 공간, 그리고 물체와 사람의 관계성에 관한 철학적 접근'을 예고하듯 보여주며 당시에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조각과 설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풍부한 시각 언어를 축적해 나가던 작가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다시금 회화적 매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점으로부터'와 '선으로부터' 연작 등, 신체의 동작과 시간의 경과를 미니멀한 흔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하는 화면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부단히 지속되어 1980년대 이후 '바람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조응', 그리고 '다이얼로그'와 같은 대표적 시리즈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철학적 숙고가 가장 간

결한 시각성으로 표현되는 그의 작업은 서구 미니멀리즘의 한계를 돌파하는 동양적 변주로 평가받으며 그의 이름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두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국제적인 반향을 이끌어 낸 일본의 현대 미술 운동인 '모노하'를 선구적으로 이끌어나간 인물로서, 이우환은 오랜 시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왔습니다. 1997년에는 주 드 폼므 국립 갤러리(Galerie Nationale du Jeu de Paume)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파리 에콜 드 보자르(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초빙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세계적인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를 통해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2010년에는 나오시마 섬에서 첫 번째 개인 미술관 개관 소식을 알리게 되었으며, 2011년과 2014년에는 각각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Château de Versailles)에서 초대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나오시마와 부산에 이어 프랑스 아를에서 세 번째 개인 미술관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년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대대적 개인전을 가지는 등 영향력의 저변을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또한 벨기에 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 of Belgium),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Modern Gallery), 파리龐피두센터(Centre Georges Pompidou), 그리고 베를린 국립미술관(Nationalgalerie Berlin)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예술가로서 그의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꾸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With Winds(바람과 함께)>는 이우환이 회화를 통한 관계적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시기의 작품으로, 80년대에 시작하여 90년대 초까지 이어진 바람 연작의 전형성을 광활하게 펼쳐진 화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풍이 불어오듯 자유로운 붓질이 서예와도 같은 흔적을 구성하고 있는 화면은 가장 간결한 구성만으로도 보는 이의 시선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농담 속에 때로는 조우하고 때로는 분산하길 거듭하는 필치는 마치 캔버스라는 제한된 공간을 개방하려는 듯 끝없는 여백을 향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은 정신성과 행위성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반복과 변주, 그리고 유한과 무한 속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관계와 만남을 추구하던 작가의 철학적 예술관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은 채 여백 공간을 부유하는 바람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개개인의 존재를 상징하며, 그것이 때때로 중첩되고 분산되는 움직임은 외

부 세계와 조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할 때 개인의 내면에 펼쳐질 수 있는 변화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작품은 보이지 않는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시적 매체로서 회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이우환의 예술적 성취, 그리고 그 점진적 과정의 일면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3. 참조 목록

Studio LeeuFan, Latest News: <https://www.studioleeufan.org/>

Pace Gallery, Artists: Lee Ufan: <https://www.pacegallery.com/artists/lee-ufan/>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 공간, 작가 소개: <https://art.busan.go.kr/index.nm?menuCd=47>

Lisson Gallery, Artists: Lee Ufan: <https://www.lissongallery.com/artists/lee-ufan>

윤진섭, 이우환과의 대화- “단색파를 둘러싸고”

<https://blog.naver.com/sunonthetree/220698404042>

Lisson Gallery, *With Winds*: <https://www.lissongallery.com/exhibitions/art-basel-miami-beach-2023/artwork/ufan910003>

Sotheby's, Contemporary Art Evening Sale, Lot 1131, *With Winds*: <https://www.sothebys.com/en/auctions/ecatalogue/2020/contemporary-art-evening-sale-hk0927/lot.1131.html>

Artasiapacific, *The Essential Works of Lee Ufan*: <https://artasiapacific.com/people/the-essential-works-of-lee-ufan>